

“빛나는 별로 떴다”…채널A 오디션프로 ‘뮤지컬스타’의 힘

4년째 진행…수상자들 무대에
최하람·김태희·김지훈 등 활약
제작진 “활약상 방송으로 계획”



채널A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 ‘DIMF 뮤지컬스타’(뮤지컬스타) 출신 스타들이 최근 뮤지컬 무대에서 활약해 눈길을 끈다. 2019년부터 매년 방송하며 인재를 발굴해온 프로그램이 4년 만에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로 인한 선순환을 기대하는 시선이 업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역대 수상자들이 출연



지난해 방송한 채널A ‘2021 DIMF 뮤지컬스타’의 수상자들. 이중 최하람(위 왼쪽부터 세 번째), 김태희(오른쪽 맨 아래) 등이 최근 다양한 뮤지컬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제공 | DIMF 사무국

하는 뮤지컬 작품들이 한꺼번에 개막해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 프로그램이 새삼 화제몰이를 했다. 28일 서울 종로구 아트원씨어터에서 초연하는 뮤지컬 ‘인간의 법정’이 대표적으로 지난해 최우수상을 거머쥔 최하람이 주연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22세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주연을 맡아해 법정에 선 안드로이드 로봇 ‘아오’를 연기한다. 해당 작품은 2019년 이후 매해 프로그램 심사위원을 맡은 장소영 음악감독이 참여하고, 올해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그룹 빅스의 멤버 켄도 출연한다.

현재 인기리에 공연 중인 ‘미세스 다

웃파이어’에는 지난해 대상 수상자 김태희가 무대에 오르고 있다. 김태희는 당시 15세의 나이로 대상을 받아 화제를 모았다. 2019년 최우수상을 받은 김지훈과 지난해 우수상을 수상한 최연우는 각각 뮤지컬 ‘브람스’와 ‘서편제’의 주역으로 출연한다.

이처럼 수상자들이 ‘라이징 스타’로 발돋움하면서 ‘뮤지컬스타’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브랜드를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시킬 목표도 새롭게 세웠다. 아직 내년 방송이 한참 남았지만, 이들의 활약을 영상으로 담은 등 일찌감치 방송 준비에 돌입했다.

22일 연출자 전경남 PD는 “‘뮤지컬스타’가 지망생들에게 꿈의 무대로 향하는 계기가 돼 기쁘다”면서 “차세대 스타 발굴에 초점을 맞춘 기획 의도와 부합하는 결과물이 나오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오디션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스타가 탄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넷플 시리즈 ‘수리남’ 2주 만에 비영어권 TV쇼 주간 차트 1위

“오징어 이후 최고의 한국드라마” 극찬

(미국 대중문화 전문매체 디사이더)

실화 모티브에 주연들 연기 호평
수리남 정부 항의, 관심 끌기 한몫
누적시청시간. 2위보다 2배 많아
언론들 “6부작으로 끝내긴 아깝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이 9일 공개 이후 2주 만에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 시청시간 1위를 차지했다. 실화 기반 스토리와 하정우·황정민·조우진 등 주연들의 연기가 시청자 호평을 이끌어내며 빠르게 입소문을 일으킨 성과이다.

●“오징어게임” 이후 최고작

넷플릭스는 ‘수리남’이 공개 3주차(12~18일)에 6265만 시청시간으로 자체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첫 주 5위로 진입한 뒤 일주일 만에 정상을 차지하는 힘을 발휘했다. 7주째 1위를 차지해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밀어냈다. 특히 영어권 드라마 부문 2위인 ‘페이트: 윈스의 전설’ 시즌2의 4896만 시청시간보다 높은 수치다.

또 첫 주 2060만 시간과 비교하면 시청시간이 무려 4305만 시간이나 늘어났다. 수리남 정부가 한국인 마약왕이 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이 실화 기반의 이야기로 세계 시선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리남을 마약으로 장악하는 이야기로 자국 이미지를 왜곡하고 훼손했다며 넷플릭스와 제작사에 항의한 뒤 오히려 글로벌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한 게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분명한 것은 ‘수리남’의 이 같은 성

과가 호평에 힘입은 점이다. 미국의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수리남’은 시청자 평점 84%를 기록 중이다. 미국 대중문화 전문 매체인 디사이더는 “‘오징어게임’ 이후 본 최고의 한국드라마”라 극찬했다.

●“최고 수준의 연기력”

디사이더는 마약왕을 잡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비밀작전을 벌이는 민간 사업가의 이야기를 그린 ‘수리남’을 넷플릭스 인기 오리지널 시리즈로 꼽히는 미국의 ‘브레이킹 배드’와 ‘오자크’ 등과 비교하기도 했다. ‘조직범죄에 휘말리는 평범한 남자’라는 소재를 공통점으로 언급했다.

다만 ‘수리남’은 창작물인 두 작품과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 시청자들도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사이트 IMDb에서 ‘실화에 바탕을 둔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놀랍다”, “극악무도한 실화를 다룬 드라마라 보게 됐다” 등 리뷰를 남겼다.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극찬도 이어지고 있다. 극중 하정우는 민간 사업자, 황정민은 한국인 마약왕, 조우진은 황정민의 수하 역 등을 연기했다. 중국어권 스타 장첸도 수리남의 중국인 마약조직을 이끄는 보스 역으로 나섰다. 이들의 연기에 대해 로튼토마토에서 상당수 누리꾼은 “최고 수준의 연가다” “앞으로 넷플릭스가 하정우와 함께 하는, 더 많은 시리즈를 선보여주길 바란다” 등 평가의 글을 올리고 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블랙핑크 2집, 걸그룹 첫 더블 밀리언셀러



블랙핑크

걸그룹 블랙핑크가 정규 2집 ‘본 핑크’를 통해 케이(K)팝 걸그룹 최초 ‘더블 밀리언셀러’(단일 앨범 판매량 200만 장 돌파)에 등극했다. 22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운영하는 씨클차트(옛 가온차트)에 따르면 8주차(9월 11~17일) 음반 부문 1위를 기록한 ‘본 핑크’는 16일 발매 현재까지 214만 1281장이 팔렸다. 케이팝 걸그룹 음반 최초로 발매 당일 100만장이 팔린 ‘본 핑크’는 초동(앨범 발매 일주일 판매량) 200만장까지 넘었다. 블랙핑크는 10월 15일과 16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월드투어를 시작한다.

영탁·김정영 등 유튜버 루머유포 강력대응



영탁

배우 김정영과 가수 영탁이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루머 유포에 칼을 빼들었다. 김정영의 소속사 에스더블유엔피는 한 유튜버가 김정영을 최근 논란이 된 혼인빙자·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여배우’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그와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는 지난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유튜버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밝혔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해 11월 영탁이 음원 사재기에 동참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영동대로 K-POP 콘서트’ 내달 2일 개최



K-POP 콘서트

케이팝 스타들이 ‘영동대로 K-POP 콘서트’ 무대에 오른다. 22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10월 2일 삼성동 코엑스 앞 영동대로 특설무대에서 ‘영동대로 K-POP 콘서트’를 개최한다. 행사는 감염병 사태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가수 싸이·청하, 그룹 하이라이트·더보이즈, 걸그룹 위클리 등이 참여하고,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티파니와 더보이즈의 현재가 진행자로 나선다. 콘서트는 당일 오후 7시부터 유튜브 ‘스브스 케이팝’과 ‘강남구청’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청불 ‘늑대사냥’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



‘늑대사냥’ 포스터

영화 ‘늑대사냥’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로는 1년 2개월 만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22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1일 개봉한 ‘늑대사냥’이 7만8995만 명을 모아 ‘공조2: 인터내셔날’을 밀어내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청소년관람불가 영화가 1위에 이름을 올린 건 호러영화 ‘랑종’이 정상을 차지했던 2021년 7월 15일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김홍선 감독이 연출하고 서인국·장동윤이 주연한 ‘늑대사냥’은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가득한 호송선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액션영화다. 피와 살점이 튀는 엄청난 폭력 수위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BTS ‘부산 콘서트’ 기업협찬 요청 논란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무료 기획
유치위 “대기업에 지원 협조 부탁”
소속사 “70억 비용 국가기여 차원”
산업부 “대기업에 떠넘긴 적 없어”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특별 콘서트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공연장의 안전문제와 교통·숙박 대란 등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부산시와 주최 측이 장소를 변경한 데 이어 이번엔 70억여 원의 막대한 공연비용을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충당하기로 하면서 부산시와 정부의 떠넘기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홍보대사인 방탄소년단은 10월 15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콘서트 ‘Yet To Come in BUSAN’(Yet To Come in BUSAN)을 연다. 무료 공연으로, 부산항 라이브 플레이와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도 전 세계 공개한다.

논란은 70억여 원의 공연비용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하이브는 22일 “기업 스폰서십, 온라인 스트리밍 광고, ‘더 시티 프로젝트’(콘서트 전후 부산 곳곳에서 다양한 즐길 거리와 이벤트를 제공하는 하이브의 도시형 콘서트 플레이 파크) 부대사업 등으로 비용을 충당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방탄소년단 팬덤(아미)은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자는 취지로 무료로 기획한 공연인데 부산시와 정



그들 방탄소년단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무료 콘서트 비용을 ‘70억 원+플러스알파’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공연 포스터. 사진제공 | 빅히트뮤직

부가 7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인 방탄소년단에 떠넘겼다”고 비판한다. “정부 행사의 홍보대사라는 이유만으로 출연료도 주지 않고 ‘열정페이’를 강요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 과정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국내 10대 기업에 공연비용 협찬을 요구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더 커졌다.

무소속 민행복 의원실은 21일 유치위원회가 각 기업에 보낸 관련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이메일에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공유했던 공연 및 연계 사업 스폰서십 제안 자료와 하이브의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가 첨부됐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타 공연처럼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 주관과 책임 아래 공연과 비용 조달 등 콘서트의 제반사항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하이브는 이날 “많은 팬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을 하고 싶다고 밝힌 방탄소년단의 생각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공연을 진행한다”면서 “방탄소년단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로 참여해 왔고, 비용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